

국 어

윌비스고시학원

배미진 교수

www.baemijin.com

영역	2015년도		2014년도		
	문항수	출제영역	문항수	출제영역	
문법	1	보조용언의 종류	2	형태론	품사
	1	조사의 쓰임 (‘에’, ‘에게’, ‘에서’의 구별)	1		접사
	1	맞춤법 (어미 ‘대’, ‘데’의 구별)	1	한글맞춤법	
	1	맞춤법 표기 (‘처’, ‘쳐’의 구별)	1	표준어표기	
	1	합성어 파생어의 구별	1	로마자쓰기	
	1	띄어쓰기	1	띄어쓰기	
	1		1	올바른 문장	
한자	2	한자성어	1	한자성어	
	1	한자(반의어인 한자)			
독해	1	두 단어의 문맥적 의미 관계	1	서술방식	
	1	문단의 중심 내용 파악		설명방식	
	1	글쓰기 자료 활용	1	내용일치	
	1	순서 배열	3	순서배열	
	1	문단의 없는 내용 파악하기	1	개요표 작성	
	1	내용 일치 불일치			
쓰기	1	유추의 방식인 독해 지문과 같은 선택지 찾기(인생을 여행에 빗대어...)	1		
	1	유추의 방식으로 쓴 문장 찾기(리더십 부재와 잘못된 정책을 등산에 빗대어...)			
문학	1	시조	1	현대소설	
	1	고전 수필 (이곡의 ‘차마설’)	1	현대시	
	1	현대시 (이용악의 ‘그리움’)	1	가사	

♣ 2015. 4. 18. 국가직 9급 총평

이번 국가직 문제는 전체적으로 어렵다고 느껴지는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독해 지문 자체가 이해하기에 어렵지도 않았고 길이가 길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문법에서도 ‘국가직 대비 마무리 특강(형태소, 품사, 낱말 짜임, 문장 성분, 문장 짜임’ 파트를 선택해서 강의를 했다.)
때 다 다뤘던 내용에서 품사 2문제, 낱말 짜임 2문제가 나와 이 부분이 정리가 잘 되어 있었던 학생들에

게는 문법 파트도 무난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문법에서 까다롭게 느낄 수 있는 두 문제가 품사(조사의 쓰임) 문제와 낱말의 짜임(‘처’와 ‘처’의 구별)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논지 전개 방식 중 유추가 잘 정리되어 있지 않았던 학생들은 2문제가 생소하고 어렵다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한자어의 문제인지 파악하지 못한 한자어 문제[결미(結尾) ↔ 모두(冒頭)] 또한 ‘모두’가 한자어라는 것을 몰랐다면 많이 헷갈렸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014년도에 한자가 1문제만 나왔다고 한자를 등한시했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한자가 3문제가 나와 곤란했을 것입니다.

강의 때 늘 말하듯이 국어는 범위가 많이 넓은 과목입니다.

스스로 ‘이 문제는 나오지 않아!’ 이런 식으로 정리했다가는 큰코다치기 일쑤입니다.

작년에 한자가 1문제 나왔다고 올해도 1문제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으며 올해 3문제 나왔다고 내년에 다시 1문제가 나오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공무원 시험 전체에서 한자 문제는 평균 2~3문제였다는 것을 보면 한자 문제는 결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다시 당부하고 싶은 말은 국가직에 3문제가 나왔다고 지방직에는 안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으므로 9급 학생들은 한자성어라도 꼭 보고 가길 바랍니다. 당장 많은 양의 한자를 보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기출 한자성어라도 꼭 보길 바랍니다.

앞서 말했듯이 국어는 영역이 매우 넓은 과목입니다. 우리는 실생활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몰라 보험을 들어 놓습니다. 국어 과목에서 보험은 문법입니다. 문법은 무엇을 공부해야 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가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은 반드시 정해진 영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하고 있어야 어떤 시험에서든 남들보다 더 좋은 점수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학은 현대 문학은 어떤 시, 어떤 소설, 어떤 수필이 나올지 알 수 없어서 범위를 정해서 공부하기에는 너무나도 막연하기만 합니다만 고전문법은 문법과 마찬가지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공부하고 시험장에 가시길 바랍니다.

서울시와 지방직 시험이 6월에 있으니 약 2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저도 늘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수험생 여러분!

2015. 04. 18 국가직 9급 배미진 최종 해설 편집 [국어] 사책형

문 1. 어법에 맞게 쓰인 것은?

- ① 내일 야유회 간데요?
- ② 그이가 말을 아주 잘하대.
- ③ 연예인을 보니 그렇게 좋던?
- ④ 제가 직접 봤는데 너무 크대요.

[정답] ③ <2015 9급 모의고사 문제집 8회 8번, 11회 7번>

‘-데’ <2015 알찬국어 1권 93쪽, 361~362쪽>, <3월 동형 모의고사 9회 11번>

‘-대’ <2015 알찬국어 1권 361~362쪽>, <3월 동형 모의고사 9회 11번>

★정답풀이 과거에 연예인을 보았을 때 좋았냐고 묻는 것이므로 ‘ 좋던?’을 쓴 것은 맞다.

‘ 좋던?’을 오히려 다음과 같이 ‘ 좋든?’이라고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표현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영희야, 연예인을 직접 보니, 그렇게 좋던?”(O) **주의** “영희야, 연예인을 직접 보니, 그렇게 좋든?”(X)
 “애, 집에 별일은 없던?”(O) **주의** “애, 집에 별일은 없든?”(X)

■ -단: 「종결 어미」 ‘-더냐’보다 더 친근하게 쓰는 말이며, 해라체 의문형 종결 어미.

‘과거에 직접 경험하여 새로이 알게 된 사실’에 대한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예 영희야, 그는 잘 있던? (=그는 잘 있더냐?)/애야, 그 사람이 더 친절하던? (그 사람이 더 친절하더냐?)

예 애, 선생님께서 기뻐하시던? (선생님께서 기뻐하시더냐?)/어머마, 일은 할 만하겠던? (일은 할 만하겠더냐?)

참고

■ -단: 「전성 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 용언을 관형어 구실을 하게 함. 어떤 일이 과거에 완료되지 않고 중단되었다는 미완(未完)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미.

예 이것은 원시인이 사용하였던 돌칼이다./달 때는 푸르던 토마토도 며칠 후면 붉게 된다.

예 그는 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결혼하였다./경보음이 울리던 달리던 차들도 서야 한다.

* 회상시제 ‘-더’가 결합된 의문형어미 ■ 맞춤법통일안 56항

-더냐? (해라체) 의문형 종결 어미	-던? (해라체) 의문형 종결 어미	-던가? (하계체) 의문형 종결 어미	-던지 연결 어미
창자가 과거에 직접 경험하여 새로이 알게 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화자가 궁금해서 물을 때 쓰인다 예 영희야 네 언니에게 별일이 없더냐? 예 영희야 연예인을 보니 그렇게 좋더냐? 예 그가 내일은 늦지 않겠다고 말하더냐? 예 이웃은 값이 얼마를 하더냐? 예 개가 나더러 뭐라고 하더냐?(=무엇하더냐?)	‘-더냐’와 쓰임이 같은 해라체이다 ‘-더냐’보다는 좀 더 친근한 듯하다 예 영희야 네 언니에게 별일이 없던? 예 영희야 연예인을 보니 그렇게 좋던? 예 그가 내일은 늦지 않겠다고 말하던? 예 이웃은 값이 얼마를 하던? 예 개가 나더러 뭐라고 하던?(=무엇하던?)	① ‘-더냐’, ‘-던과 쓰임이 같다 ‘-더냐’, ‘-던’보다 높임의 뜻인 하계체이다 예 자네가 보니 그 집 향반이 어뻐던가? 예 자네도 직접 연예인을 보니 그렇게 좋던가? 예 김 사장 자네도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 이 들던가? ② 과거의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에게 물을 때 예 내가 그런 말을 했던가? 예 내가 예전에 그를 본 적이 있던가? ③ 과거의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 다시 떠올려 추측을 할 때 예 영희가 작년에 가게 갔던가?	①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그것을 뒤 질의 사실이 나 판단과 관련해서는 데 쓰는 연결 어미 예 아이가 얼마나 밥을 많이 먹던지 나는 아이가 배탈이 날까 걱정이 되었다. 예 동생도 놀이가 재밌었던지 더 이상 얹미를 찾지 않았다. 예 가을 하늘이 얼마나 곱던지 눈물이 다 나더라. 예 얼마나 졸던지 손이 곱아 파지지 않았다. 예 그때는 왜 그렇게 자식에 대하여 무심하였던지 지금 생각해 보니 부끄럽기만 해 ② 과거의 일을 회상하여 감탄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 ③ 의문장 형태에서 주로 뒤 질이 생략되어 종결 어미처럼 쓰이기도 한다 예 어제 날씨는 얼마나 좋던지... 예 가을 하늘이 얼마나 곱던지... 예 그때는 왜 그렇게 자식에 대하여 무심하였던지

참고

‘-든’, ‘-든지’, ‘-든가’ 물건이나 일의 내용을 가리지 아니하는 뜻을 나타내는 조사와 어미 ■ 맞춤법통일안 56항

보조사: (이)든지, (이)든가, (이)든	연결 어미: -든지, -든가, -든
어느 것이 선택되더라도 차이가 없는 둘 이상의 일을 나열함을 나타내는 보조사 예 키위든지 수박이든지 먹고 싶은 대로 갔다 마파 (=키위든가 수박이든가=키위든 수박이든) 예 봄이든지 가을이든지 한번 여행을 다녀야겠다 (=봄이든가 가을이든가= 봄든 가을이든) 예 공부를 잘한다든지 운동을 잘한다든지 무엇이든 하는 걸해야 한다. 예 오랫동안 고시 공부를 하다 보면 다 그만두고 살든지 밖으로 뛰쳐나가고 살든지 하는 충동이 하루에도 열 두 번씩 든다. 예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마치는 대로 음식을 먹든지 나비 책을 읽든지 하면서 생각을 다른 대로 돌린다.	① 나열된 동작이나 상태 대상들 중에서 어느 것이든 선택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든지 -든지 구성으로 쓰일 때는 흔히 뒤에 하다가 온다 예 도서관에 오든지 학회에 가든지 해야 (=도서관에 오든가 학회에 가든가= 오든 ~가든) 예 계속 가든지 여서 왔다가 굶어 죽든지 네가 결정해라 ② 실제로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알려지지 않음의 내용이 생략하는 데 이용된 선택이 없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간에나’ 생략이 때와 무관해서 뜻을 분명히 할 때가 있다 예 노래를 부르든지 춤을 추든지 간에 네 맘대로 해라 예 살든지 졸든지 간에 따를 수밖에 없다 예 무엇을 고르든지 잘만 고라 예 아예 살든지 고향을 찾자는 마라

★오답풀이

- ① 내일 야유회 간데요? (×) → 내일 야유회 간대요? (○)
 ② 그이가 말을 아주 잘하데. (×) → 그이가 말을 아주 잘하데. (○)
 ④ 제가 직접 봤는데 너무 크대요 (×) → 제가 직접 봤는데 너무 크대요 (○)

※ ‘-대는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남이 말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때 쓰이고, ‘-데는 화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나중에 보고하듯이 말할 때 쓰이는 말로 ‘-다와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데 쓰인다.

-대(-래)	-ㄴ-대	-는-대	구별 → -데
‘다고 해 - 준말 예 사람들이 그대데 얘가 아주 똑똑<u>다고</u> 해요. ↳ 똑똑<u>하대</u>요. 예 재주의 유채꽃이 참 <u>아름답다</u><u>고</u> 하<u>대</u>요. ↳ 아름답<u>대</u>요. 예 영호 누나랑 통화했<u>데</u> 영호가 잠에 <u>안다</u><u>고</u> 해 ↳ <u>안대</u>. 예 찬가까 그대데 그는 유명한 <u>사람</u><u>이</u><u>다</u><u>고</u> 해 ↳ <u>사람</u><u>이</u><u>데</u>. 예 암카 찰수는 밥을 <u>먹</u><u>다</u><u>고</u> 해<u>요</u>. ↳ <u>먹</u><u>었</u><u>대</u>요. 예 내일 만화도 <u>오</u><u>겠</u><u>다</u><u>고</u> 해<u>요</u>? ↳ <u>오</u><u>겠</u><u>대</u>요?	‘-다고 해 - 준말 예 그는 몸이 아파서 못 <u>온</u><u>다</u><u>고</u> 해<u>요</u>. ↳ <u>온</u><u>대</u>요. 예 영호 누나가 그대데 영호는 지금 <u>잔</u><u>다</u><u>고</u> 해 ↳ <u>잔</u><u>대</u>. 예 밤이 늦어서 재들은 아제 잠에 <u>간</u><u>다</u><u>고</u> 해 ↳ <u>간</u><u>대</u>. 예 모암에 <u>참</u><u>하</u><u>다</u><u>고</u> 했<u>어</u>. ↳ <u>참</u><u>하</u><u>대</u>.	‘-는다고 해 - 준말 예 서양사람들도 감자를 잘 <u>먹</u><u>는</u><u>다</u><u>고</u> 해<u>요</u>. ↳ <u>먹</u><u>는</u><u>대</u>요. 예 장수는 감자를 잘 먹지 <u>안</u><u>다</u><u>고</u> 해 ↳ <u>안</u><u>대</u>. 예 불장가에서 영화는 곧 장수를 <u>잘</u><u>다</u><u>고</u> 했<u>어</u>. ↳ <u>잘</u><u>는</u><u>대</u>.	「종결 어미」 하깨체 종결어미 과거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한꺼번에 말하는 장면에 그대로 옮겨 와서 말하는 종결 어미 예 어제 보니 신왕이 말을 아주 <u>잘</u><u>하</u><u>데</u>. ↳ <u>잘</u><u>하</u><u>대</u>라. 예 동창을 만났<u>데</u> 그 찬가아들만 <u>돌</u><u>아</u><u>데</u>. ↳ <u>돌</u><u>아</u><u>다</u>라. 예 20년 만에 찾간 고향은 하도 <u>변</u><u>하</u><u>지</u><u>않</u><u>다</u><u>데</u>. ↳ <u>않</u><u>다</u>라. 예 직접 보니 가수 OO는 정말 <u>예</u><u>쁘</u><u>대</u>요. ↳ <u>예</u><u>쁘</u><u>다</u>.
구별 → -대	「종결 어미」 해체 주어진 사실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놀라거나 못마땅하게 여기는 뜻이 섞여 있다. 참고 종결 어미 ‘-다’와 쓰임이 같다. ‘-다’는 해체이다. 예 신왕이 <u>어쩔</u> <u>이</u><u>렇게</u> <u>잘</u><u>생</u><u>겼</u><u>다</u><u>고</u> (= 어쩔 이렇게 잘생겼다) / 일군이 자그스<u>데</u> 왜 <u>이</u><u>렇게</u> <u>흠</u><u>다</u><u>고</u> (= 왜 이렇게 흠다) 오늘<u>따</u>라 왜 <u>자</u><u>작</u><u>신</u><u>대</u> (= 왜 자작신다) / 왜 <u>이</u><u>렇게</u> <u>일</u><u>이</u> <u>많</u><u>다</u><u>고</u> (= 왜 이렇게 많다)		
구별 → -건대	「연결 어미」 ((일부 동사 ‘보다’ 듣다, 마다, 생각하다, 짐작하다 등의 어간 뒤에 붙어) 뒤 절의 내용이 화자가 보거나 듣거나 마다거나 생각하는 때의 내용임을 미리 밝히는 연결 어미 예 내가 <u>보</u><u>건</u><u>대</u> 찰수는 장차 크게 될 아이다 / 재발 <u>바</u><u>라</u><u>건</u><u>대</u> 정신 좀 차려 / <u>들</u><u>건</u><u>대</u> 당국이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니 / 내가 <u>생</u><u>각</u><u>하</u><u>건</u><u>대</u> / 내가 <u>짐</u><u>작</u><u>하</u><u>건</u><u>대</u>		

문 2. 띄어쓰기가 바른 것은?

- ① 그 사고는 여러 가지 규칙을 도외시 하였기 때문이야.
 ② 사실상 여자 대 남자의 대리전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아.
 ③ 반드시 거기에 가겠다면 내키는 대로 행동해서는 안 돼.
 ④ 금연을 한 만큼 네 건강이 어느 정도까지 회복될 지 궁금해.

[정답] ③

‘밖에’ <2015 알찬국어 1권 97쪽, 139쪽>, <3월 동형 모의고사 8회 13번, 11회 13번>

‘대로’ <2015 알찬국어 1권 88~89쪽, 145쪽>, <3월 동형 모의고사 8회 13번>

‘만큼’ <2015 알찬국어 1권 88쪽, 139쪽>, <3월 동형 모의고사 5회 5번, 11회 13번, 12회 8번>

‘-르지’ <2015 알찬국어 1권 90쪽>

13. 띄어쓰기의 규정 설명과 예가 모두 바른 것은? <3월 동형 모의고사 8회 13번>

- ①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예) 제
 √ 1차, 제 1차 회의

삼√학년이 되었다. 삼학년이 되었다.

②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예) 내가 본대로 느낀대로 말할게.

합격자는 너밖에도 몇 명이 더 있어.

③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붙여 씀을 원칙으로 하되 띄어 씀을 허용한다.

예) 이 일은 할만하다. 할√만하다.

그릇을 깨뜨려버렸다. 깨뜨려√버렸다.

④ 성과 이름, 성과 호는 붙여 쓴다.

예) 민용하, 이충무공, 황보지봉, 남궁억

[정답] ④

★정답풀이

체언 뒤의 '대로'는 조사. 용언의 관형사형 뒤의 '대로'는 의존명사.

★오답풀이

① 도외시√하였기 때문이야. (X) → 도외시하였기 때문이야. (○): '도외시하다'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 도외시하다: 상관하지 아니하거나 무시하다. ❗ 현실을 도외시하다/그의 말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② 대리전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아. (X) → 대리전으로밖에 보이지 않아. (○): 부정 표현과 함께 온 '밖에'는 조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밖에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의 뜻으로 반드시 뒤에 부정 표현이 따라 온다.** 참고, 밖에 + 부정 표현 = 뿐이다 주의, ‘뿐’을 부정 표현과 함께 쓰지 않도록 주의한다. ❗ 공부밖에 모르는 학생 = 아는 것은 공부뿐이다. (‘모르다’에 ‘알지 못하다’라는 뜻이 있다.)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 남은 것은 하나뿐이다. 내가 문을 열어 본 교실은 이 교실밖에 없다. = 문을 열어 본 교실은 이 교실뿐이다. 합격자는 나밖에 없다. = 합격자는 나뿐이다. 구별, 자립명사 ‘밖’ ❗ 교실√밖에(=바깥에) 사람이 없다. (명사 ‘밖’ + 부사격 조사 ‘에’) 합격자는 나 밖에도 더 있다. (명사 ‘밖’ + 부사격 조사 ‘에’ + 보조사 ‘도’)
----	--

④ 회복될√지 궁금해. (X) → 회복될지 궁금해. (○): 의문, 추측의 뜻을 가진 ‘-ㄴ지/-을지’는 어미이므로 붙여 쓴다.

지	의존명사 ‘지’	[어미 ‘-(으)/ㄴ’ 뒤에 쓰여]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말. ❗ 그를 만난√지도 꽤 오래되었다. / 떠난온√지 어언 3년이 지났다. ❗ 강아지가 집을 나간√지 사흘√만에 돌아왔다.
	구별 연결어미 ‘(으)ㄴ지’ ‘(으)ㄴ지’ ‘는지’, ‘던지’	[용언의 어간 뒤에 붙여] ㉠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뒤 절의 사실이나 판단과 관련시키는 데 쓰임. ❗ 그는 얼마나 부지런한√지 세 사람의 몫을 능히 해낸다. ❗ 애들이 얼마나 떠드는√지 책을 읽을 수가 없었어. ㉡ 추측 및 막연한 의문. (보조사 ‘요’가 뒤에 붙으면 높임의 뜻) ❗ 마을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 옳은√지 몰라서 갈팡질팡했다.

문 3. 밑줄 친 조사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축 면적은 설계도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제안서 및 과업 지시서는 참가 신청자에게 한하여 교부한다.

- ③ 관계 조서 사본을 관리 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인다.
- ④ 제5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평가는 1년 유예를 둔다.

[정답] ②

‘에서’ <2015 알찬국어 1권 128쪽, 139쪽>, <3월 동형 모의고사 8회 6번>
 ‘에게’ <2015 알찬국어 1권 135쪽>, <3월 동형 모의고사 2회 5번>
 ‘에’ <2015 알찬국어 1권 138쪽>, <3월 동형 모의고사 2회 5번, 12회 2번>

5. 밑줄 친 조사 ‘에’의 쓰임이 적절한 것은? <3월 동형 모의고사 2회 5번>

- ① 내 친구가 학급 회장에 뽑혔다.
 ② 회사에서 직원들에 선물을 주었다.
 ③ 부장님은 부산에 자동차를 타고 떠났다.
 ④ 그는 바닥에 자는 아들을 안아 일으켰다.

[정답] ①

2. 조사의 쓰임이 맞는 것은? <3월 동형 모의고사 12회 2번>

- ① 파티의 분위기가 절정으로 다다랐을 때 그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② 술에 많이 취하셨는데요, 선생님 댁이 어디십니까?
 ③ 나는 부모님께 결혼 문제를 상의했다.
 ④ 저희들에게 축복과 격려를 해 주신 데에 감사드립니다.

[정답] ②

★정답풀이

제안서 및 과업 지시서는 참가 신청자에게 한하여 교부한다. (×) → 제안서 및 과업 지시서는 참가 신청자에 한하여 교부한다. (○)

■ 한하다: 「동사」 【…에】 어떤 조건, 범위에 제한되거나 국한되다.

★오답풀이

① ■ 정하다(定--): 「동사」 [1] 【…을 …으로】 【-기로】 여럿 가운데 선택하거나 판단하여 결정하다.

예 식단을 서양식으로 정하다/도읍을 서울로 정하다/친구의 딸을 며느릿감으로 정하다.

[2] 【…을】 「1」 규칙이나 법 따위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다.

예 우리는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 함께 의논하여 세 가지 규칙을 정했다./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융통성을 가진다.

「2」 뜻을 세워 굳히다. 예 그는 다시는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③ ■ 비치하다(備置--): 「동사」 【…을 …에】 마련하여 갖추어 두다.

예 가정에도 상비약을 항상 비치해 두는 것이 좋다./이 도서관은 옛 문헌을 많이 비치하고 있다.

④ ■ 불구하다(不拘--): 「동사」 【…에】 【-음에】 ((‘-에도/-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으로 쓰여)) ((‘-음에도’ 대신에 ‘-는데도’가 쓰이기도 한다)) 얽매어 거리끼지 아니하다. 예 몸살에도 불구하고 출근하다.

문 4. 다음 글에서 경계하고자 하는 태도와 유사한 것은?

비판적 사고는 지엽적이고 시시콜콜한 문제를 트집 잡아 물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핵심을 중요한 대상으로 삼는다. 비판적 사고는 제기된 주장에 어떤 오류나 잘못이 있는가를 찾아내기 위해 지엽적인 사항을 확대하여 문제로 삼는 태도나 사고방식과는 거리가 멀다.

- ① 격물치지(格物致知)
- ② 본말전도(本末顛倒)
- ③ 유명무실(有名無實)
- ④ 돈오점수(頓悟漸修)

[정답] ②

‘격물치지’ <알찬국어 3권 10쪽, 2015 9급 모의고사 20회 7번, 2015 알찬한자 1권 14쪽>

‘본말전도’ <알찬국어 3권 35, 93쪽, 2015 알찬한자 부록편 32쪽, 98쪽>

‘유명무실’ <알찬국어 3권 55쪽, 015 알찬한자 1권 311쪽, 2015 알찬한자 2권 42쪽>

★정답풀이

비판적 사고는 문제의 핵심을 중요한 대상으로 삼으며 지엽적인 사항을 확대하여 문제로 삼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말로 보아 답은 ‘일의 근본 줄기는 잊고 사소한 부분에만 사로잡힘’을 뜻하는 ‘본말전도(本末顛倒)’이다.

▶ 비판적 사고는 (지엽적이고 시시콜콜한 문제를 트집 잡아 물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핵심을 중요한 대상으로 삼는다.



▶ 비판적 사고는 제기된 주장에 어떤 오류나 잘못이 있는가를 찾아내기 위해 / 지엽적인 사항을 확대하여 문제로 삼는 태도나 사고방식과는 거리가 멀다.

참고

■ 본말(本末): 「1」 사물이나 일의 처음과 끝.

「2」 사물이나 일의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

■ 전도(顛倒)[전-]: 「명사」 「1」 엎어져 넘어지거나 넘어뜨림. = 전부(顛仆).

「2」 차례, 위치, 이치, 가치관 따위가 뒤바뀌어 원래와 달리 거꾸로 됨. 또는 그렇게 만들.

★오답풀이

① ■ 격물치지(格物致知): 실제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여 지식을 완전하게 함.

③ ■ 유명무실(有名無實): 이름만 그럴듯하고 실속은 없음.

④ ■ 돈오(頓悟): 「1」 갑자기 깨달음. = 돈각(頓覺).

「2」 『불교』 소승에서 대승에 이르는 얕고 깊은 차례를 거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바로 대승의 깊고 묘한 교리를 듣고 단번에 깨달음. = 돈각.

■ 점수(漸修): 『불교』 차례와 위계를 거쳐 수행하고 득도함.

문 5. 다음을 논리적 순서로 배열한 것은?

ㄱ. 그 덕분에 인류의 문명은 발달될 수 있었다.

ㄴ. 그 대신 사람들은 잠을 빼앗겼고 생물들은 생체 리듬을 잃었다.

ㄷ. 인간은 오랜 세월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신체 조건을 맞추어 왔다.

ㄹ. 그러나 밤에도 빛을 이용해 보겠다는 욕구가 관솔불, 등잔불, 전등을 만들어 냈고, 이에 따라 밤에 이루어지는 인간의 활동이 점점 많아졌다.

-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ㄴ - ㄱ - ㄹ - ㄷ
 ③ ㄷ - ㄹ - ㄱ - ㄴ ④ ㄹ - ㄷ - ㄴ - ㄱ

[정답] ③

★정답풀이 순서는 ㄷ - ㄹ - ㄱ - ㄴ이다.

ㄷ. 인간은 오랜 세월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신체 조건을 맞추어 왔다.
 ↓
 ㄹ. 그러나 밤에도 빛을 이용해 보겠다는 욕구가 관솔불, 등잔불, 전등을 만들어 냈고, 이에 따라 밤에 이루어지는 인간의 활동이 점점 많아졌다.
 ↓
 ㄱ. 그 덕분에 인류의 문명은 발달될 수 있었다.
 ↓
 ㄴ. 그 대신 사람들은 잠을 빼앗겼고 생물들은 생체 리듬을 잃었다.

참고

- 대신(代身): 「1」 ((명사, 대명사 뒤에 쓰여)) 어떤 대상의 자리나 구실을 바꾸어서 새로 맡음. 또는 그렇게 새로 맡은 대상.
 - 예 모유 대신에 우유를 먹이다/희망 대신 절망을 주다/당분간 형이 아버지 대신이다.
- 「2」 ((어미 ‘-은’, ‘-는’ 뒤에 쓰여)) 앞말이 나타내는 행동이나 상태와 다르거나 그와 반대임을 나타내는 말.
 - 예 그녀는 얼굴이 예쁜 대신 마음씨는 고약하다.

문 6. 리더십 부재와 잘못된 정책을 ‘등산’에 빗대어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처럼 말이 많으면 어느 산을 오를 것인지 결정할 수 없습니다.
 ② 등산로를 잘 알지 못하더라도 길잡이가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면 많은 사람들이 등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③ 길잡이가 방향을 잘못 가리키고 혼자 가 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산 정상에 오를 수 없어 등산의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④ 등산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봉우리에 올랐다는 기쁨 그 자체이므로 길잡이는 항상 등산하는 사람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정답] ③

★정답풀이 ‘리더십이 없는 지도자가 잘못된 정책으로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지 못하다’ 이것을 ‘등산’에 빗대어서 ‘산을 오를 때 길잡이(지도자)가 방향을 잘못 가리켜 사람들을 산꼭대기(지향점)로 오르지 못하게 하다’로 유추한 ③이 적절하다.

문 7.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사물놀이는 사물(四物), 즉 팽과리, 징, 장구, 북의 네 가지 타악기만으로 연주하는 음악을 말한다. 사물놀이는 풍물놀이와는 좀 다르다. 풍물놀이를 무대 공연에 맞게 변형한 것이 사물놀이인데, 풍물놀이가 대체로 자기 지역의 가락만을 연주하는 데 비해 사물놀이는 거의 전 지역의 가락을 모아 재구성해서 연주한다.

사물놀이 연주자들은 흔히 쟁쟁거리는 팽과리를 천둥이나 번개에, 잣게 몰아가는 장구를 비에, 둥실대는 북을 구름에, 여운을 남기며 울리는 징을 바람에 비유한다. 천둥이나 번개, 비, 구름, 바람이 어우러지며 토해 내는 소리가 사물놀이 소리라는 것이다. 사물놀이는 앉아서 연주하는 사물놀이와 서서 연주하는 사물놀이의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 있는데, 전자를 ‘앉은반’, 후자를 ‘선반’이라고 한다.

- ① 사물놀이의 가치
- ② 사물놀이의 소리
- ③ 사물놀이의 악기 종류
- ④ 사물놀이의 연주 형태

[정답] ①

★정답풀이 읽글에 ‘사물놀이의 가치’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② 사물놀이의 소리 - (둘째 문단의 첫째, 둘째 문장)

사물놀이 연주자들은 흔히 쟁쟁거리는 팽과리를 천둥이나 번개에, 잣게 몰아가는 장구를 비에, 둥실대는 북을 구름에, 여운을 남기며 울리는 징을 바람에 비유한다. 천둥이나 번개, 비, 구름, 바람이 어우러지며 토해 내는 소리가 사물놀이 소리.

③ 사물놀이의 악기 종류 - (첫 문단의 첫째 줄)

사물놀이는 사물(四物), 즉 팽과리, 징, 장구, 북의 네 가지 타악기만으로 연주하는 음악.

④ 사물놀이의 연주 형태 - (첫 문단의 마지막 줄, 둘째 문단의 마지막 줄)

사물놀이는 거의 전 지역의 가락을 모아 재구성해서 연주.

물놀이는 앉아서 연주하는 사물놀이와 서서 연주하는 사물놀이의 두 가지 형태.

문 8.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글의 기본 단위가 문장이라면 구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기본 단위는 발화이다. 담화에서 화자는 발화를 통해 ‘명령’, ‘요청’, ‘질문’, ‘제안’, ‘약속’, ‘경고’, ‘축하’, ‘위로’, ‘협박’, ‘칭찬’, ‘비난’ 등의 의도를 전달한다. 이때 화자의 의도가 직접적으로 표현된 발화를 직접 발화, 암시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표현된 발화를 간접 발화라고 한다.

일상 대화에서도 간접 발화는 많이 사용되는데, 그 의미는 맥락에 의존하여 파악된다. ‘아, 답다.’라는 발화가 ‘창문을 열어라.’라는 의미로 파악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방 안이 시원하지 않다는 상황을 고려하여 청자는 창문을 열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화자는 상대방이 충분히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간접 발화를 전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도 한다.

공손하게 표현하고자 할 때도 간접 발화는 유용하다. 남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려는 경우 직접 발화보다 청유 형식이나 의문 형식의 간접 발화를 사용하면 공손함이 잘 드러나기도 한다.

- ① 발화는 구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기본 단위이다.
- ② 간접 발화의 의미는 언어 사용 맥락에 기대어 파악된다.
- ③ 간접 발화가 직접 발화보다 화자의 의도를 더 잘 전달한다.
- ④ 요청할 때 청유문이나 의문문을 사용하면 더 공손해 보이기도 한다.

[정답] ③

★정답풀이

2문단 “간접 발화는 많이 사용되는데, 그 의미는 맥락에 의존하여 파악된다.”
 “상대방이 충분히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간접 발화를 전략적으로 사용함”
 : 이 내용만으로는 ‘화자의 의도를 더 잘 전달한다는 것은 간접 발화’라는 ③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문단의 “암시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표현된 발화”가 간접 발화라는 설명을 통해서도 ③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 ① 첫째 줄 - 글의 기본 단위가 문장이라면 구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기본 단위는 발화이다.
- ② 두 번째 문단 - 일상 대화에서도 간접 발화는 많이 사용되는데, 그 의미는 맥락에 의존하여 파악된다.
- ④ 세 번째 문단 - 남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려는 경우 직접 발화보다 청유 형식이나 의문 형식의 간접 발화를 사용하면 공손함이 잘 드러나기도 한다.

문 9.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는 집이 가난하여 말이 없어서 간혹 남의 말을 빌려 탄다. 노둔하고 여윈 말을 얻게 되면 일이 비록 급하더라도 감히 채찍을 대지 못하고 조심조심 금방 넘어질 듯 여겨서 개울이나 구렁을 지날 때는 말에서 내려 걸어가므로 후회할 일이 적었다. 발굽이 높고 귀가 쫓긋하여 날래고 빠른 말을 얻게 되면 의기양양 마음대로 채찍질하고 고삐를 늦추어 달리니 언덕과 골짜기가 평지처럼 보여 매우 장쾌하지만 말에서 위험하게 떨어지는 근심을 면치 못할 때가 있었다. 아! 사람의 마음이 옮겨지고 바뀌는 것이 이와 같을까? 남의 물건을 빌려서 하루아침의 소용에 쓰는 것도 이와 같은데, 하물며 참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야 어떻겠는가?

- 이곡, ‘차마설(借馬說)’ -

- ① 경험을 통한 통찰력이 돋보인다.
- ② 우의적 기법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 ③ 대상들 사이의 유사점을 통해 대상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 ④ 일상사와 관련지어 글쓴이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③ <알찬국어 기본서 2권 167쪽>

★정답풀이

이 글에서는 대상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③은 설명의 방식 중 하나인 ‘비교’에 대한 풀이다.

■ 우의적(寓意的) 기법 : 다른 사물에 빗대어 비유적인 뜻을 나타내거나 풍자함. 또는 그런 의미.

문 10. 다음 글과 같은 방식으로 논리를 전개한 것은?

진리가 사상의 체계에 있어 제일의 덕이듯이 정의는 사회적 제도에 있어 제일의 덕이다. 하나의 이론은 그것이 아무리 멋지고 간명한 것이라 하더라도 만약 참되지 않다면 거부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법과 제도는 그것이 아무리 효율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정의롭지 않다면 개혁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 ① 의지의 자유가 없는 사람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지는 자유롭다고 보아야 한다.
- ② 여자는 생각하는 것이 남자와 다른 데가 있다. 남자는 미래를 생각하지만 여자는 현재의 상태를 더 소중하게 여긴다. 남자가 모험, 사업, 성 문제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여자는 가정, 사랑, 안정성에 비중을 두어 생각한다.
- ③ 우리 강아지는 배를 문질러 주면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 버려. 그리고 정말 기분 좋은 듯한 표정을 짓지. 그런데 내 친구 강아지도 그렇더라고. 아마 모든 강아지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 ④ 인생은 여행과 같다. 간혹 험난한 길을 만나기도 하고, 예상치 않은 일을 당하기도 한다.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고 그들과 관계를 맺기도 한다. 여행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것처럼 생을 끝내고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더없이 편안해질 것이다.

[정답] ④

★정답풀이

유추(類推)의 방식에 의한 내용 전개 방식이 쓰였다.

<보기>

진리가 사상의 체계에 있어 제일의 덕이**듯이**
정의는 사회적 제도에 있어 제일의 덕이다.

하나의 이론은 그것이 아무리 멋지고 간명한 것이라 하더라도
만약 참되지 않다면 거부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법과 제도는 그것이 아무리 효율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정의롭지 않다면 개혁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선택지 ④

인생은 여행과 같다.

(여행 중에) 간혹 험난한 길을 만나기도 하고, 예상치 않은 일을 당하기도 한다.
(인생에서)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고 그들과 관계를 맺기도 한다.

**여행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것처럼
생을 끝내고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더없이 편안해질 것이다.**

문 11. 밑줄 친 부분이 맞춤법에 맞지 않는 것은?

- ① 하나에 백 원씩 쳐주마.
- ② 여름이 되니 몸이 축축 쳐지네.
- ③ 아궁이에서 쓰레기를 쳐대고 있지.
- ④ 오는 길에 쳐박힌 자전거를 보았어.

[정답] ①

쳐대다 <알찬국어 1권 73쪽>

쳐- <알찬국어 1권 73쪽>

★**정답풀이** 쳐주마 (X) → 쳐주마 (O): ‘쳐주다’는 동사 ‘치다’와 동사 ‘주다’가 결합된 합성어이다. ‘치다’의 활용형 ‘치어’가 축약되어 ‘쳐’가 된 것이므로 ‘쳐’의 표기가 맞다.

■ 쳐주다: 「동사」 「1」 셈을 맞추어 주다.

예 네 땅을 평당 100만 원으로 쳐줄 테니 나에게 팔아라./하나에 천 원을 쳐줄 테니 그걸 모두 나한테 팔아라.

「2」 인정하여 주다.

예 그 분야의 제일인자로 쳐주는 사람/꼴뚜기나 전어 새끼 같은 것은 우리 동네에서는 고기라고 쳐주지도 않았다.

참고

■ 치다: [1] 「1」 셈을 맞추다.

예 그 땅은 요즘의 값으로 치면 상당히 나갈 것이다./이만하면 값을 잘 쳐서 판 것이다.

상인들은 한 개에 300원을 쳐서 팔려고 했다./적어도 한 개당 오백 원을 쳐야 손해를 안 본다.

「2」 ((‘...으로’나 ‘-고’ 대신에 ‘-다손, -ㄴ다손, -라손’ 따위가 쓰이기도 한다)) 어떠한 상태라고 인정하거나 사실인 듯 받아들이다.

예 그는 내 작품을 최고로 쳤다. ㄴ 그녀는 그의 능력을 높게 친다.

[2] 계산에 넣다.

예 너까지 인원에 쳐야 모두 열 명이다./이것까지 전부 쳐서 얼마죠?

★**오답풀이**

■ 쳐-: 「접사」 ((일부 동사 앞에 붙어)) ‘마구’, ‘많이’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예 쳐먹다/쳐넣다/쳐바르다/쳐박다/쳐대다/쳐담다.

■ 쳐지다: 「1」 위에서 아래로 축 늘어지다.

「2」 감정 혹은 기분 따위가 바닥으로 잠겨 가라앉다.

「3」 뒤에 남게 되거나 뒤로 떨어지다.

「4」 다른 것보다 못하다.

■ 쳐대다: 「1」 함부로 자꾸 대 주다. 「2」 마구 대다.

- 처박다: 매우 세게 막다.
- 처박히다: '처박다'의 피동사.

문 12. 밑줄 친 부분 중 보조 용언이 결합되지 않은 것은?

- ① 창문 너머로 날이 밝아 온다.
- ② 동생이 내 과자를 먹어 버렸다.
- ③ 우체국에 들러 선배의 편지를 부쳐 주었다.
- ④ 그는 환갑이 지났지만 40대처럼 젊어 보인다.

[정답] ④

보조용언의 종류 <알찬국어 1권 154~157쪽>, <3월 동형 모의고사 8회 9번><2015 9급 모의고사 9회 8번>

9. 용언의 종류가 다른 하나는? <3월 동형 모의고사 8회 9번>

- ① 어머니는 시장으로 저녁거리를 사러 가셨다.
- ② 아이가 얼마나 울어 짖는지.
- ③ 이 책 내가 한번 읽어 볼게.
- ④ 우체국에 들러 선배의 편지를 부쳐 주었다.

[정답] ①

★정답풀이 그는 환갑이 지났지만 40대처럼 젊어 보인다.

그는 환갑이 지났지만 40대처럼 젊다. + 보인다.

(본용언) (본용언)

■ 보이다

[2] 【…으로】 【-게】 ((‘…으로’나 ‘-게’ 대신에 평가를 뜻하는 다른 부사어가 쓰이기도 한다))

‘보다01[I][3]’의 피동사.

- 예 아무리 감정을 잡으려고 해도 그는 단순한 남자 후배로만 보였다.
- 예 그는 아직 20대인데도 불구하고 외모는 40대처럼 보인다.
- 예 그 일이 있은 후에 나는 그녀가 매우 가련하게 보였다.
- 예 오늘따라 그 소녀는 꽤 예뻐 보였다.
- 예 하늘이 곧 갠 것처럼 보인다.

★오답풀이

- ① 창문 너머로 날이 밝아 온다.
(본용언) (보조용언)

■ 오다 「보조동사」

((주로 동사 뒤에서 ‘-어 오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가 말하는 이 또는 말하는 이가 정하는 기준으로 가까워지면서 계속 진행됨을 나타내는 말.

- 예 날이 밝아 온다./그는 이 직장에서 30년간이나 일해 왔다./그는 지금까지 아픔을 잘 견뎌 왔다.

- ② 동생이 내 과자를 먹어 버렸다.
(본용언) (보조용언)

■ 버리다 「보조동사」

((동사 뒤에서 ‘-어 버리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나타내는 행동이 이미 끝났음을 나타내는 말. 그 행동이 이루어진 결과, 말하는 이가 아쉬운 감정을 갖게 되었거나

또는 반대로 부담을 덜게 되었음을 나타낼 때 쓴다.

㉠ 동생이 과자를 다 먹어 버렸다./약속 시간에 조금 늦게 갔더니 친구들은 모두 가 버리고 없었다./그 일을 다 해 버리고 나니 속이 시원하다.

③ 우체국에 들러 선배의 편지를 부쳐 주었다.

(본용언) (보조용언)

■ 주다 「보조동사」

((동사 뒤에서 '-어 주다' 구성으로 쓰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어떤 행동을 함을 나타내는 말.

㉠ 밥을 대신 먹어 주다/친구의 자동차를 수리해 주다/그는 친구의 숙제를 대신 해 주었다./환자에게 밥을 먹여 주었다./우리는 학교를 가는 길에 잠시 우체국에 들러 선배의 편지를 부쳐 주었다.

문 13. 밑줄 친 부분의 의미 관계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 ① 세 시간이 흐르도록 분분했던 의견들이 마침내 하나로 합치하였다.
- ② 아무리 논리적 사고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비판이 따르게 마련이다.
- ③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보여주는 겸손은 가끔 오만으로 비칠 수도 있다.
- ④ 결미에 제시된 결론이 모두에서 진술한 내용과 관련을 맺는다면 좀 더 긴밀한 구성이 될 것이다.

[정답] ②

[정답 풀이] ②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반의어 관계인 단어이다.

‘합치’ <알찬한자 1권 259쪽>

‘사고’ <알찬한자 1권 217쪽>

‘비판’ <알찬한자 1권 208쪽>

‘겸손’ <알찬한자 1권 46쪽, 53쪽>

‘오만’ <알찬한자 1권 38쪽, 168쪽>

‘결미’ <알찬한자 1권 183쪽>

★오답풀이

① ■ 분분하다(紛紛--): 「형용사」 「1」 떠들썩하고 뒤숭숭하다.

㉠ 나라 안팎이 분분하던 그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

「2」 여럿이 한데 뒤섞여 어수선하다. ‘다양하다’, ‘어지럽다’로 순화.

㉡ 꽃잎이 분분하게 떨어지다.

「3」 소문, 의견 따위가 많아 갈피를 잡을 수 없다.

㉢ 소문이 분분하다/공론이 분분하다/이러자 저러자 의견이 분분하여 끝이 없다.

■ 합치하다(合致--): 【(…과)】【…에】 ((‘…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여럿임을 뜻하는 말이 주어로 온다))

의견이나 주장 따위가 서로 맞아 일치하다.

㉠ 우리 두 사람은 공동 작업을 하는 데에 의견이 합치했다.

이번 정책은 대다수 국민의 의견에 합치하는 것이다.

③ ■ 겸손(謙遜/謙巽):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음.

■ 오만(傲慢): 태도나 행동이 건방지거나 거만함. 또는 그 태도나 행동.

④ ■ 결미(結尾): 「1」 글이나 문서 따위의 끝 부분. ㉠ 작품의 서두와 결미.

「2」 = 결말(結末).

■ 모두(冒頭): 말이나 글의 첫머리.

문 14. 밑줄 친 사자성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는 결단력이 없어 좌고우면(左顧右眄)하다가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쳐 버렸다.

- ② 다수의 기업이 새로운 투자보다 변화에 대한 암중모색(暗中摸索)을 시도하고 있다.
- ③ 그 친구는 침소봉대(針小棒大)하는 경향이 있어서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
- ④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성공한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나 마찬가지이다.

[정답] ④

★정답풀이 ■ 緣木求魚(연목구어):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015 9급 모의고사 20회 11번, 2015 알찬한자 1권 16쪽, 86쪽, 154쪽, 177쪽, 284쪽, 291쪽, 알찬한자 2권 89쪽, 106쪽>

★오답풀이

- ① ■ 左顧右盼(좌고우면): 이쪽저쪽을 돌아본다는 뜻으로, 앞뒤를 재고 망설임을 이르는 말. <2015 알찬한자 1권 62쪽, 303쪽, 349쪽, 알찬한자 2권 57쪽>
- ② ■ 暗中摸索(암중모색): 「1」 물건 따위를 어둠 속에서 더듬어 찾음. <2015 알찬한자 2권 42쪽>
 「2」 어림으로 무엇을 알아내거나 찾아내려 함.
 「3」 은밀한 가운데 일의 실마리나 해결책을 찾아내려 함.
- ③ ■ 針小棒大(침소봉대): 작은 일을 크게 불리어 떠벌림. <2015 알찬한자 1권 23쪽, 41쪽, 54쪽, 240쪽, 알찬한자 2권 64쪽>

문 15.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삼동(三冬)에 ㉠ 베옷 입고 암혈(巖穴)에 ㉡ 눈비 맞아
 구름 낀 별뉘도 찢 적이 없건마는
 ㉢ 서산에 해 지다 하니 ㉣ 눈물겨워 하노라.

- ① ㉠: 화자의 처지나 생활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 ② ㉡: 화자와 중심 대상 사이를 연결하는 매개체이다.
- ③ ㉢: 화자가 머물고 있는 공간과 구별되는 공간이다.
- ④ ㉣: 상황에 대한 화자의 감정이 직접 표출되고 있다.

[정답] ②

★정답풀이 이 시조는 작가 조식(曹植)이 중종의 승하 소식을 듣고 연군의 정을 노래한 것이다.
 초장은 청빈한 자기의 생활을 나타내는 것이고,
 중장은 벼슬을 하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백성으로 임금의 승하 소식을 들으니 슬픔을 못 참겠다는 심정을 읊은 노래이다.

추운 겨울 동안에도 베옷으로 겨우 몸을 가리고 깊은 산속 움막집에 묻혀 눈비를 맞으며 살아가니,
 (벼슬을 아니하며 평민으로 청빈하게 살아가니)
 구름에 가린 햇살조차도 찢 적이 없건마는,
 (임금의 은총을 입은 바 없지만) 벼슬하지 않음
 그래도 해가 서산을 넘어가니 (임금께서 돌아가셨다니)
 슬픔을 이기지 못하겠노라.

문 16. () 안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개살구’, ‘잠’, ‘새파랗다’ 등은 어휘 형태소인 ‘살구’, ‘자-’, ‘파랗-’에 ‘개-’, ‘-ㅁ’, ‘새-’와 같은 접사가 덧붙어서 파생된 단어들이다. 이처럼 직접 구성 요소 중 접사가 확인되는 단어들을 ‘파생어’라고 한다. 반면, () 등은 각각 실질적 의미를 지닌 두 요소가 결합하여 한 단어가 된 경우인데, 이를 ‘파생어’와 구분하여 ‘합성어’라고 한다.

- ① 고추장, 놀이터, 손짓, 장군감
- ② 면도칼, 서릿발, 신동이, 장난기
- ③ 깎두기, 선생님, 작은형, 핫바지
- ④ 김치찌개, 돌다리, 시나브로, 암탉

[정답] ①

<2015 9급 모의고사 4회 4번, 2015 9급 모의고사 9회 10번, 2015 9급 모의고사 10회 1번>

‘손짓’ <2015 알찬국어 1권 50쪽>

‘깎두기’ <2015 알찬국어 1권 69쪽>

‘-발’ <2015 알찬국어 1권 75쪽>

‘-동이’ <2015 알찬국어 1권 74쪽>

‘-님’ <2015 알찬국어 1권 74쪽>

‘작은형’ <2015 알찬국어 1권 65쪽 갈피잡기>

‘핫바지’ <2015 알찬국어 1권 73쪽>

‘돌다리’ <2015 알찬국어 1권 61쪽, 66쪽>

‘암탉’ <2015 알찬국어 1권 72쪽>

★정답풀이

◆ 고추장: 고추(어근) + 장(어근) ⇒ 통사적 합성어

◆ 놀이터: 놀이(어근) + 터(어근) ⇒ 통사적 합성어

◆ 손짓: 손(어근) + 짓(어근) ⇒ 통사적 합성어

참고

■ 짓: 「명사」 몸을 눌러 움직이는 동작. 주로 좋지 않은 행위나 행동을 이른다.

예 나쁜 짓/어리석은 짓/부질없는 짓/짐승만도 못한 짓/짓을 부리다/미운 짓만 골라서 한다.

◆ 장군감: 장군(어근) + 감(어근) ⇒ 통사적 합성어

참고

■ 감: 「명사」 「1」 옷이나 이불 따위를 만드는 바탕이 되는 피륙. 주로 옷감의 뜻으로 쓴다.

예 구김이 잘 가는 감/감을 꿰다/흰 감에 검은 물을 들였다./이 옷은 감이 부드럽다.

「2」 ((옷을 뜻하는 명사 뒤에 붙어)) ‘옷을 만드는 재료’의 뜻을 나타내는 말.

예 한복감/양복감.

「3」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옷감을 세는 단위. 한 감은 치마 한 벌을 뜰 수 있는 크기이다.

예 치마 한 감을 떼다./이 비단은 한복 한 감이 되고도 남는다.

「4」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자격을 갖춘 사람’의 뜻을 나타내는 말.

예 신랑감/머느릿감/사윗감/장군감.

「5」 ((일부 명사 뒤에 붙어)) 대상이 되는 도구, 사물, 사람, 재료의 뜻을 나타내는 말.

예 구경감/놀림감/양념감/안줏감/장난감.

★오답풀이

② ◆ 면도칼: 면도(어근) + 칼(어근) ⇒ 통사적 합성어

◆ 신동이: 신(어근) + -동이(접사) ⇒ 파생어

참고

■ 신동이: 나이가 신이 넘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

■ -동이: 「접사」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런한 성질이 있거나 그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예 귀염둥이/막내둥이/해방둥이/바람둥이.

◆ 장난기: 장난(어근) + 기(접사) ⇒ 파생어

참고

■ -기(氣): 「접사」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기운’, ‘느낌’, ‘성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예 시장기/소금기/기름기/화장기/간기/바람기.

③ ◆ 깍두기: 깍둑(어근) + -이(접사) ⇒ 파생어

◆ 선생님: 선생(어근) + -님(접사) ⇒ 파생어

◆ 작은형: 작은(어근) + 형(어근) ⇒ 통사적 합성어

◆ 핫바지: 핫-(접사) + 바지(어근) ⇒ 파생어

참고

■ 핫바지: 「1」 솜을 두어 지은 바지. 예 희치희치 낚고 땃국이 꼬죄죄한 핫바지에 중대님을 매고….

「2」 시골 사람 또는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예 그는 나를 핫바지로 여기며 무시한다.

■ 핫-: 「접사」 ((일부 명사 앞에 붙어)) 「솜을 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예 핫것/핫바지/핫웃/핫이불.

④ ◆ 김치찌개: 김치(어근) + 찌개(어근) ⇒ 통사적 합성어

◆ 돌다리: 돌(어근) + 다리(어근) ⇒ 통사적 합성어

◆ 시나브로: 시나브로 ⇒ 단일어

참고

■ 시나브로: 「부사」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고유어인 단일어)

◆ 암탉: 현대 - 암(접사) + 닭(어근) ⇒ 파생어(현대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암-’ 접사로 등재함)

참고 고전문법 - 암(‘ㅎ’종성 체언) + 닭(어근) ⇒ 합성어(옛말에서는 ‘ㅎ’ 종성 체언으로 해석)

문 17. 다음 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인문학은 세상에 대한 종합적이고 비판적인 해석과 시각을 제공한다. 인문학이 해석하는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현대 사회는 사회의 복잡성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함에 따라 위험과 불확실성이 커졌으며, 다양한 정보 통신 기술이 정보와 지식의 생산, 유통, 소비를 혁신적으로 바꾸면서 사람들 사이의 새로운 상호 의존 관계를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현대 사회가 불확실하고 복잡하며 매일 매일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 나아가 지구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타인과의 상호 관계가 내 삶에 예기치 못한 영향을 미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인문학은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 ① 현대 사회에서 인문학이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 말하고 있어.
- ②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면서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 ③ 과거와 현대 사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대조하면서 현대 사회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어.
- ④ 사회의 복잡성으로 인해 타인과의 소통에 장애가 생긴다는 점을 현대 사회의 주요한 특징으로 말하고 있어.

[정답] ①

★정답풀이

인문학은 (세상에 대한) / (종합적이고 비판적인) 해석과 시각을 제공한다.

	인문학이 해석하는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현대 사회는 사회의 복잡성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함에 따라
'인문학'	위험과 불확실성이 커졌으며,
학문이	다양한 정보 통신 기술이 정보와 지식의 생산, 유통, 소비를 혁신적으로 바꾸면서
다루는	사람들 사이의 새로운 상호 의존 관계를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세상	과거와는 다른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현대 사회가 불확실하고 복잡하며 매일 매일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
	나아가 지구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타인과의 상호 관계가 내 삶에 예기치 못한 영향을 미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 인문학은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문 18.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글을 쓰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위 : %, 중복 응답)

인터넷의 순기능	88. 4	59. 0	46. 6	13. 1	12. 9
	다양한 정보의 습득	편리한 커뮤니케이션	온라인 교육 및 여가 활용	다양한 의견의 장	다양한 동호회 참여 및 활동
인터넷의 역기능	84. 3	83. 9	56. 2	16. 1	10. 2
	욕설, 비방, 허위 사실 유포	성인 음란물 유통	개인 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반국가 행위

- ① 인터넷을 이용하면 필요한 정보를 다양하게 얻을 수 있음을 서술한다.
- ②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안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한다.
- ③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인터넷 윤리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④ 인터넷이 잘못된 여론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 사용을 금지할 것을 주장한다.

[정답] ④

★정답풀이 위의 자료는 인터넷의 역기능을 얘기하여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인터넷 윤리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는 있으나 인터넷 사용 자체를 금지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문 19. <보기>를 참고하여 ㉠ ~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용악은 1945년 해방이 되자 고향인 함경북도 경성에 가족을 두고 홀로 상경한다. ‘그리움’은 몹시 추웠던 그해 겨울밤 고향에 두고 온 가족을 그리워하며 쓴 시이다.

눈이 오는가 ㉠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간
백무선 철길 위에
느릿느릿 밤새워 달리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에

연달린 산과 산 사이
㉡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

잉크병 얼어드는 ㉢ 이러한 밤에
어찌자고 ㉣ 잠을 깨어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 이용악, '그리움' -

- ① ㉠은 자신이 떠나온 공간인 고향을 가리키는 것이겠군.
- ② ㉡은 고향에 남겨 두고 온 가족을 의미하는 표현이겠군.
- ③ ㉢은 극심한 추위 속에서도 가족을 떠올리는 시간이겠군.
- ④ ㉣은 그리운 이를 볼 수 없는 화자의 절망적 심정을 투영한 대상물이겠군.

[정답] ④ <일한국어 기본서 2권 615쪽>

★정답풀이 잠을 깬 행위 자체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염려로 가득한 화자의 심정을 나타낸 것이므로 '잠' 자체가 화자의 절망적 심정을 투영한 대상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풀이

- ① ㉠의 '북쪽'은 가족이 있는 곳인 고향을 의미한다.
- ② ㉡의 '너'는 가족을 의미한다.
- ③ ㉢의 '이러한 밤'은 매우 추운 날씨를 의미한다.

이용악(1914~1971): 함경북도 경성 출생. 30년대 후반에 활동한 시인.

호는 편파월(片破月). 한국 전쟁 당시 월북하여 그 동안 문학사에서 다루어지지 못하였으나, 당시의 현실을 꾸밈없이 시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될 만한 시인이다. 일본 도쿄에 있는 조치대학을 졸업했다. 대학에 재학 중이던 1935년, 《신인문학》에 시 <패배자의 소원>을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광복 후 조선문학가동맹 소속으로 활약하다 미군정에 의해 수감되었으며 1950년 6·25 전쟁 당시 월북했다. 월북한 지 21년이 지난 1971년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작으로는 <북국의 가을>, <폴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낡은 집>, <슬픈 사람들끼리> 등이 있으며 시집으로는 《분수령》, 《낡은 집》, 《오랑캐꽃》 등이 있다.

문 20. 다음 글에 나타난 ‘그림:액자’의 관계와 가장 비슷한 것은?

2000년이 된 기념으로 ○○화랑에서 화가 200인의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큐레이터가 보내 준 카탈로그를 보고 전화로 김○○ 화백의 그림을 바로 예약했다. 큐레이터는 “작품이 작는데 병 속에 세 명이 들어가 있어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느냐?”라고 했지만, 나는 내가 설정한 ‘가족’이라는 주제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여 구입하기로 하였다.

전시회가 끝난 뒤 작품을 받아 보니 액자가 그림보다 훨씬 컸다. 이렇게 액자가 크니, 큐레이터의 걱정과는 달리 그림이 답답해 보이지는 않았다. 이것이 바로 ‘액자의 힘’이다. 내가 아는 어떤 애호가는 좋은 액자를 꾸준히 모은다. 갖고 있는 그림의 액자를 바꾸기 위해.

- ① 유명 인사들의 사회적 성공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그들은 그 요인으로 하나같이 좋은 습관을 든다. - ‘성공: 습관’
- ② 나는 가끔 책을 장난감 블록처럼 다양하게 쌓아 본다. 책의 무거움, 진부함, 지루함을 해소하고, 즐겁고 유쾌하게 책을 재발견하고자 하는 것이다. - ‘책: 장난감 블록’
- ③ 로댕은 돌을 바라봅니다. 그 안에서 손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움직여 돌 속의 손을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실패하지요.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고 로댕은 다시 새 돌을 꺼내 바라봅니다. - ‘돌: 손’
- ④ 인간은 단 몇 초 만에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를 결정한다고 한다. 몇 초 만에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면, 내면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옷차림은 분명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 ‘내면: 옷차림’

[정답] ④

★정답풀이

2000년이 된 기념으로 ○○화랑에서 화가 200인의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큐레이터가 보내 준 카탈로그를 보고 전화로 김○○ 화백의 그림을 바로 예약했다. 큐레이터는 “작품이 작는데 병 속에 세 명이 들어가 있어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느냐?”라고 했지만, 나는 내가 설정한 ‘가족’이라는 주제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여 구입하기로 하였다.

전시회가 끝난 뒤 작품을 받아 보니 액자가 그림보다 훨씬 컸다. 이렇게 액자가 크니, 큐레이터의 걱정과는 달리 그림이 답답해 보이지는 않았다. 이것이 바로 ‘액자의 힘’이다. 내가 아는 어떤 애호가는 좋은 액자를 꾸준히 모은다. 갖고 있는 그림의 액자를 바꾸기 위해.

윗글의 필자는 자신의 생각대로 그림을 샀다. 그림의 주제는 좋으나 좀 답답한 느낌이 드는 그림이다.

그림을 사서 액자에 넣었더니 액자 덕분에 그림이 전혀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즉 ‘액자의 힘’이란, 그림의 작품성이나 그림의 크기도 좋아야 하겠지만 그 그림을 돋보이게 할 형식 틀인 액자도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림:액자’의 관계는 ④의 관계와 같다.

④ 내면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옷차림은 분명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 ‘내면: 옷차림’